

# 강릉 선교장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이론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Space Characteristic that Appears on Gangneung Seongyojang

- Focusing on Phenomenological Space Theory by Maurice Merleau-Ponty -

**Author** 유선미 You, Sun-Mi / 정희원,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수료  
김영원 Kim, Young-Won / 정희원,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서수경 Suh, Swoo-Kyung / 이사,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환경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학 박사

**Abstract** This research regards that experiencing certain space according to looking through sensations of body will finally make visual perceptual experience to happen. Our bodies incorporate sensible experience along with interactions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while making movements. The analysis of Seongyojang in Gangleung through top and bottom, depth, movement and experience space which are Merleau Ponty's phenomenological space elements ha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up and down directivity inherent in Seongyojang has different directions in movements by the axis of plane. Second, the depth by the correlation between things and bodies shows the interactions with things and the depth of space rendered by the servants' quarters of '一字形' and the overlapping effect from the movement between buildings can be seen and felt. Third, mobility is focused on the surroundings for the movements of body and thing. Fourth, the experienced space remains as what it is and is experienced through the experience of traditional cultures. The temporality where the past and the present subsist is give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modern living pattern in the traditional space. That is, the space from the point of phenomenological view makes the visual-perceptual experience possible through the senses of body, with which the space is experienced and sensed. In other words, the space from the phenomenological viewpoint makes visual-perceptual experience possible through the senses of body so that the space may be experienced and perceived. Through this study, a new viewpoint toward Korean traditional space is expected to be discovered.

**Keywords** 모리스 메를로-퐁티, 현상학, 지각, 연속, 체험, 강릉 선교장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Perception, Sequence, Experience, Gangneung Seongyojang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근대 시기를 지나면서 시각 중심적 사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시선이 나타나면서 공간을 바라보는 시점이 시각에 지배되지 않고 몸 전체의 본질적인 시점으로 맞춰졌다. 우리의 몸은 움직임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감각적 경험들을 통합한다. 현대의 공간은 점차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자극하여 얻어지는 시지각적 경험에 의한 공간체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몸에 의한 현상학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는 세계를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맺어지는 사물과의 관계성이라 주장하였

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접근으로 본 공간특성은 몸의 감각과 지각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감성적 경험과 체험을 얻게 한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보여주는 것은 몸의 현상학적 기술에 관한 철학적 사유가 얼마나 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의 훌륭한 예증이다.<sup>1)</sup> 특히 동양철학에서는 예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상호관계와 만물의 조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자연친화적인 가치는 시지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려는 서양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지세와 풍토적 조건에 순응하여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동양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다. 한국전통 공간 또한 실용과 실질을 숭상한 측면에서나, 공간 이용자의 개입에 의해 비로소 공간의 본질이 완성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친인간성이 돋보인다.

1) 류의근,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pp.704-709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이론을 통해 한국 전통공간 중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하나인 강릉 선교장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학적 공간특성을 추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논의들 가운데 메를로-퐁티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분석 대상 선정은 2012년 한옥설계 캠프에서 진행된 현장 답사와 조선시대 상류주택 중 정치·사회를 통한 지도층의 만남의 장으로 개방적인 공간과 가족들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강릉 선교장으로 정하였다. 또한, 강릉 선교장은 300여 년 동안 원형이 잘 보존되었고, 유교적 규범에 의한 일정한 법식에 구애되지 않아 유기적인 평면 구성을 통해 자유로운 신체의 움직임으로 시지각적인 체험이 가능하여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은 2장에서 시점 변화의 분석을 통해 현상학이 대두되는 흐름을 살펴본 후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이론 중 공간이론의 ‘상·하, 깊이, 운동’ 그리고 ‘체험된 공간’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공간특성을 통해 상류주택에서 부각되었던 ‘채를 통한 내·외부 공간, 의장적 특성, 지형에 따른 배치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분석들을 토대로 강릉 선교장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 2. 메를로-퐁티 현상학적 공간이론 고찰

### 2.1. 시점의 변화

서구의 시각 중심적 사상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었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는 시각을 가장 보편적인 감각으로 생각했고 시각과 촉각을 동일시했다.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식의 원근법 체제’와 ‘그것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반역사적으로 신체에서 분리된 주체에 특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했다.<sup>2)</sup> 그리고 감각들 사이의 동시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나는 사물의 독특한 구조, 독특한 존재방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대상이 내 모든 감각에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라고 언급했다. 시각에만 초점을 맞추던 서구사상의 인식은 몸을 통하여 체험하거나 사물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면서 점차 다양한 감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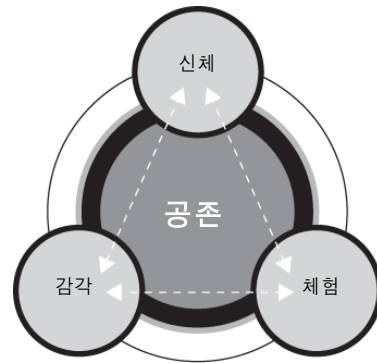
2) Martin Jay, *Scopic Regimes of Modernity*, in Hal Foster, *Vision and Visuality*, Bay Press, 1988, p.10

3) Maurice Merleau-Ponty, *The Film and the New Psyc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p.48

### 2.2.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 (1) 현상학적 공간이론

메를로-퐁티는 공간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존으로 보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점보다는 그 현상의 본질을 더 중요시했다. 감각적 경험들은 몸을 통해 통합되고 우리의 몸과 몸의 움직임은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한다. 즉 현상학은 지향성<sup>4)</sup>을 뜻하며 대상은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공간의 지각은 모든 감각의 집합체로서 지각의 주체인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형적인 의식 대신 실존적인 세계에 의한 원초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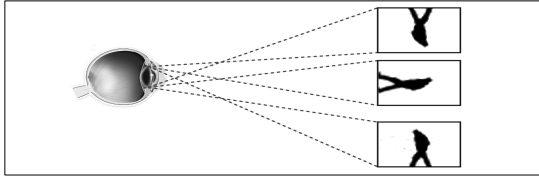
<그림 1> 실존적인 세계의 형성

#### (2) 상·하

상·하는 공간에서의 신체역할과 지각되는 감각의 기능을 설명한다. 스트래튼(Stratton)의 안경실험<sup>5)</sup>에서 피험자는 신체에 대한 두 표상을 가진다. 하나는 촉각적 감각들에 의해서 ‘시각적 상들’에 의해 주어지는 표상이고, 다른 하나는 ‘발이 공중에 있는 현재의 시각에 의한 표상이다. 피험자에게 시각적 소여와 촉각적 소여를 조화시키는 법을 가르치는 시각에 의한 통제된 운동의 경험으로 대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똑바로 서 있는 것’ 또는 ‘전도된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공간에서의 방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축의 방향 흐름에 따라 항상 신체와의 관계도 그 흐름을 통해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공간성과 방향성을 형성하며 뇌에서 인지하는 형식이 아닌, 신체의 감각이 주체가 되어 공간의 방향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4) 후설(Edmund Husserl, 1859) 그는 철학을 엄밀히 규정된 과학으로서, 과학적 지식에 관한 순수 논리학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였고, 구체적인 주관으로부터 분리된 ‘순수의식’의 탐구를 실시하여 현상학을 제창하였다.(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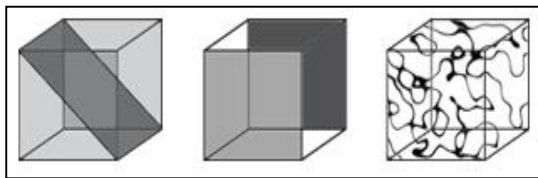
5) 피험자에게 망막의 상을 정립상(正立像)으로 고쳐 세우는 안경용 끼도록 하는데, 처음에는 거꾸로 보이다가 조금씩 정상적 시각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한다. 이전의 공간을 기초로 해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7일째에 정위된 지평에 둘러싸인다.(류의근,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그림 2> 신체에 대한 표상의 변화

(3) 깊이

공간에서 형성되는 깊이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물과의 거리감을 말한다. 공간의 깊이는 내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를 통하여 생기는 거리를 통해 지각하게 되고, 사물과 나 사이의 불가 분리한 결합을 알려준다. 이것은 사물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보는 데 따라 그 사물들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포함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크기는 거리를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리에 의해 포함된다. 사물들과 주체의 관계를 의미하며 메를로-퐁티는 몸의 실존적인 체험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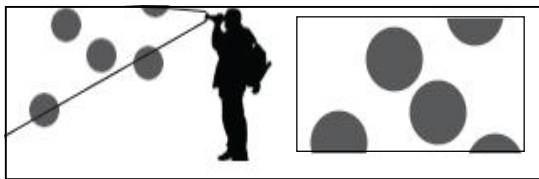


A) 여러개의 삼각형 B) 완전한 대칭 C) 면의 깊이감 파괴

<그림 3> 시선의 변화로 지각되는 깊이

(4)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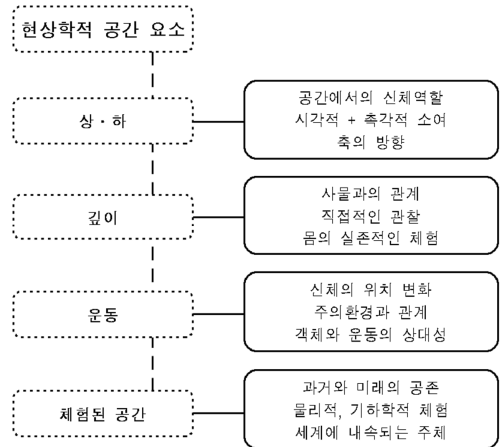
운동은 ‘장소의 이동’ 또는 ‘위치의 변화’로서 운동을 지각하는 자와 그 주위의 관계 변화로 볼 수 있다. 돌을 던졌을 때 정원을 향해 던졌을 때, 돌이 정원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것은 잠시 동안 유성이 되었다가 약간 먼 거리의 땅에 떨어지면서 다시 돌이 된다. 주위와의 관계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체’, 엄밀하게 말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운동이 시작하는 것은 움직이는 동체에서이고, 운동이 장에서 전개되는 것은 그 동체로부터이다.<sup>6)</sup> 운동의 상대성으로 볼 때 움직이지 않는 점과 운동 중인 점 중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운동 중인 점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림 4> 동체의 움직임으로 지각되는 운동

(5) 체험된 공간

메를로-퐁티는 우리의 몸이 항상 시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에 대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간은 시간에 의하여 인식하되, 시간의 존재는 경험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공존한다. 주체를 환경에 구축시키는 것은 주체가 세계<sup>7)</sup>에 내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공간성의 조건을 가지게 한다. 모든 지각은 지각하는 주체가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기능을 통해 대상과의 만남으로 신체에 내재되어 미래를 표현한다. 나와 모든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물리적 거리나 기하학적 거리 이외의 체험된 거리가 나와 존재하는 사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공간의 체험을 통하여 지각 되는 감각들은 의식적이지 않고, 몸 에 내재되어 있던 체험 의식과 연결된다.



<그림 5> 현상학적 공간 요소 추출

3.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특성

3.1. 시대적 배경

조선은 건국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점차 지배층의 생활에 정착되었다. 집안에 가묘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도 집에서 행해지는 유교적 의식이 커졌고, 그로 인해 제사가 이루어졌던 대청마루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사대부가의 주거형식이 정착되어 갔다. 16세기에 들면서 일부 호화로운 특권층의 주택이 확산되었고, 17세기 전반기를 지나며 사대부의 사회적 위상이 커졌다. 18세기 중반 이후 도성을 비롯해 전국 중요 도시들은 점차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변모되었다. 19세기에 이르면서 지배층이

7) 세계는 우리의 삶이 발생하는 계기로서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경험과 행동, 심지어 이것들을 주체화하는 의식을 포함한 일체의 환경을 말한다.

6) 류의근,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p.118

분화하여 소수의 특권층이 형성 되었고 세련미를 갖춘 일부 부유한 양반층의 주택이 곳곳에 세워졌으며, 이는 곧 궁궐 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당시 사대부가 주택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공간의 다양성과 세련미가 보편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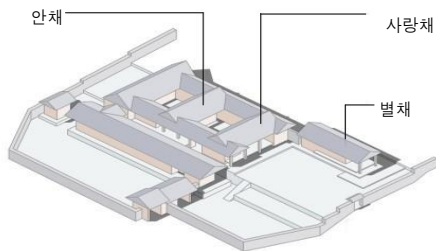
### 3.2. 상류주택의 정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살던 주택을 말하고, 대가족제도에 의하여 한 주택 내에 3대에서 4대에 이르는 가족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다.<sup>8)</sup> 신분제도의 품계에 따라 대지의 규모나 가옥의 칸수 등 제약을 받았고, 100칸은 궁궐에서만 가능하였으며 상류주택은 99칸까지 허용되었다. 상류주택은 99칸, 6마당, 12대문 집으로 칭하였고 행랑채, 사랑채, 안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 등 6채로 구성되며 담과 채 건물의 형식으로 각 각 마당을 가지고 있다. 가족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를 통한 지도층의 만남의 장소로서 개방적인 공간과 가족들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형성된 한국 전통주택을 말한다.

### 3.3. 상류주택의 내부공간 구성

#### (1) 채를 통한 내·외부 공간

조선시대 주거의 특성으로 채 단위로 생겨나는 공간으로 마당은 현대에서 관상용으로 인식되는 정원과는 달리 내부 주거생활의 연장으로 인식하므로 내부공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유교사상으로 인한 주인과 하인, 남과 여, 나이 계층 구별로 동쪽은 사랑채, 서쪽은 안채의 배치 형식을 볼 수 있다. 안채는 안주인의 공간으로 폐쇄적이며 주택에 있어서 가장 안 쪽에 위치한다. 사랑채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담론하고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림 6> 향단<sup>9)</sup>

#### (2) 상류주택의 의장적 특성

상류주택의 선(Line)은 인방, 대들보, 종도리 서까래 등의 구성요소들로 의장의 방향이나 느낌을 형성하고 운동감이나 정적인 느낌을 준다.<sup>10)</sup> 대청은 방과 방을 연결

8)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p.377

9) www.kocca.kr 문화콘텐츠닷컴

시키는 공간으로 우물마루, 회반죽 마감의 벽과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고, 대청과 안방 사이의 들어열개는 들쇠로 들어올려 개방이 가능하므로 외부와의 소통이 활발해진다. 상류주택의 벽체와 창호는 시지각적으로 구조적인미를 이루며 비레나 형태를 형성한다. 또한 유교사상의 내외구분으로 남녀간의 구별로 안방가구와 사랑방가구로 구분된다. 사랑방용 가구는 문학을 위한 무채색의 검소하고 무쇠장식과 놋쇠장식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며 안채는 문양과 형태를 중요시하여 음양무늬와 꽃 문양 등 화려한 장식의 가구가 사용되었다.



<그림 7> 양진당 사랑채 천장

#### (3) 배치적 특성

상류주택은 지형지세 및 풍수지리에 의하여 좌향(坐向)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한국 전통건축은 좌와 향을 남향을 내치는 도향을 길지로 치며, 터는 이러한 남·동향을 취할 수 있는 곳을 길지로 친다.<sup>11)</sup>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고 집이 바라보는 방향을 자연과 함께 만들고 있는 축에 배치하였다. 지형에 따른 좌향의 설정으로 변화로운 자연환경에 조화를 이룬 배치로 다양한 시각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림 8> 향단 입면도

## 4. 강릉 선교장에 대한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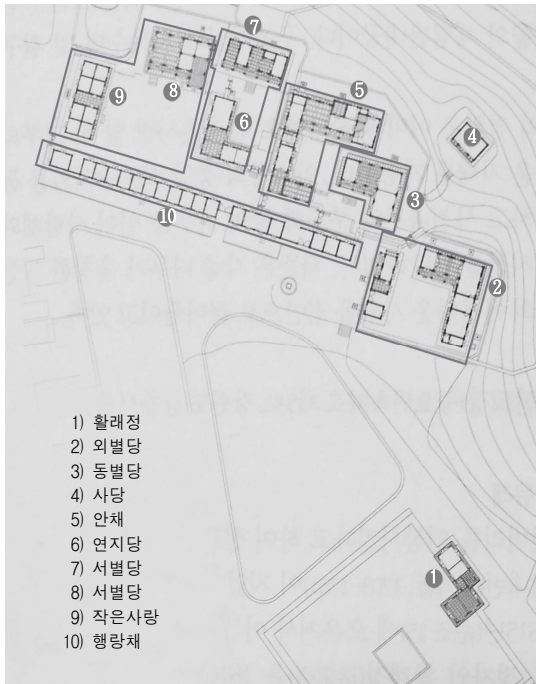
### 4.1. 강릉 선교장의 건축개요

강릉 선교장<sup>12)</sup>은 99칸의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상류주

10) 권기화, 시지각적 분석을 통해 본 강릉 선교장 내부공간 구성요소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론, 2005, p.34

11) 최진영, 조선시대 양동마을의 배치구조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1호, 1987.4, p.79

택으로서 1965년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 5호로 지정된 개인소유의 국가 문화재이다. 300여 년 동안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전통가옥으로 주변의 산으로 둘러싸여 형성되었다. 산 아래 안채를 비롯해 동별당과 서별당 및 연지당이 안채군을 이루고, 좌측으로는 열화당과 중사랑채, 그리고 사랑채와 안채 전면으로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11동으로 이루어져 509,17㎡(168평)이다. 대부분의 건물의 좌향은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남서향을 하고 있다.<sup>13)</sup>



<그림 9> 강릉 선교장의 배치도

## 4.2. 강릉 선교장의 건축특징

### (1)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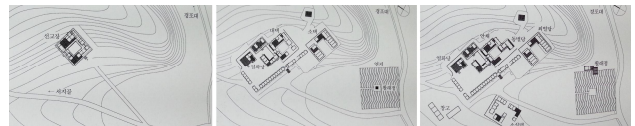
가족을 위한 사적(私的)공간과 손님을 위한 공적(公的)공간이 공존하는데, 사적 공간은 안채 영역과 서별당 영역, 외별당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적 공간은 열화당 영역, 활래정, 방해정으로 구분된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은 행랑채로 연결되며, 스물세 칸의 '一자형'의 구조로 두 개의 대문으로 되어있다. 이중 동쪽의 평대문은 여성 및 가족들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서쪽 솟을대문은 남성 및 손님들이 열화당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입구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있다.



<그림 10> 선교장 서쪽의 솟을대문과 동쪽의 평대문

### (2) 배치와 구성

선교장은 분산형 주택으로 통일감과 짜임새는 조금 결여되어 있으나, 다른 상류주택에서 볼 수 없는 인간미 넘치는 활달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동지방의 집중형 주택과는 다른 묘미가 있다. 일반적인 상류주택은 평면구조에 따라 日자형, 月자형, 口자형, 用자형 등의 길상문자형의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교장은 유교적 규범이나 허세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범식에 구애되지 않으면서 자유로우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sup>14)</sup> 선교장은 口자형으로 창건되어 폐쇄적인 구조에서 점차 오랜 세월이 걸쳐 확장되어 왔다.



A) 개기(開基)당시 추정도 B) 장원으로 변화 C) 이근우 당시 선교장

<그림 11> 선교장의 확장<sup>15)</sup>

### (3) 폐쇄성과 개방성

선교장은 북쪽 지방의 폐쇄성과 남쪽 지방의 개방성이 공존하는데, 북방 주택의 특징인 양통집<sup>16)</sup> 田자형 구조와 남방 주택의 특징인 대청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양통집의 이중 온돌 사용과, '一'자형 안뜰, 그리고 강원도 특유의 담과 담 지붕 등의 다양한 지방의 주택 유형이 혼용되어 있다.



<그림 12> 서별당 입구와 마당

14) 차장섭,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집 이야기, 열화당, 2011, p.82

15) 차장섭, 같은책, p.36

16) 양통 : 한국 건축은 지붕 면을 정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는 주로 건물의 앞뒤 방향으로 놓이며 도리는 대부분 건물의 좌우 방향으로 놓이게 된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앞뒤 방향의 길이, 즉 측면 길이를 '양통' 또는 '보간'이라 불렀다. (김도경,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 현암사, 2011)

12) 종목 : 중요민속자료 제5호,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13)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강릉 선교장) 기록화 사업

### 4.3.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강릉선교장 분석

#### (1) 선교장에 나타나는 상·하의 방향성

선교장의 사랑채는 열화당과 중사랑, 아랫사랑, 그리고 사랑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적으로 권위를 표현하였다. 열화당은 선교장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로 큰 대청과 온돌방, 그리고 작은 대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대청은 여름철 많은 손님들이 모여 문밖을 전부 떼어 걸어 개방하여 사용되었고, 전후좌우로 주변의 경치를 둘러 볼 수 있었다. 행랑채는 스물세 칸의 一자형으로 행랑채 벽면에 표현된 구조부재와 창호의 각기 다른 높이로 인하여 리듬감을 더해준다. 행랑채를 경계로 안과 밖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위계의 순서대로 채가 놓여있어 자연스레 위계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 (2) 선교장에 나타나는 깊이의 공간감

안채는 口자형의 안마당으로 ㄷ자형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본채의 대청을 기준으로 양쪽에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안방 옆에 부엌이 위치해 공간을 이동하면서 깊은 공간감을 가지게 된다. 口자형 마당은 일반적으로 폐쇄적인 성향으로 안채를 감싸고 있다. 동별당은 안채와 연결된 별당으로 선교장에서 가장 높고 웅장하다. 안채와 같은 높이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一자형으로 세운 건물로, 가운데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대청은 사방의 벽이 창문으로 이루어져 모두 개방이 가능하여 공기의 순환이 활발하다. 또한 동별당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용하는 가족 공용 공간으로, 선교장의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기도 하고, 주인이 손님을 피해 편안히 쉬는 곳이기도 하였다. 채와 채의 이동이 활발하여 곳곳에 중첩효과가 나타나 공간감과 동시에 액자효과로 인한 주변경치와의 소통이 활발하다.

#### (3) 선교장에 나타나는 신체의 움직임

선교장에서 가장 개방된 공간인 활래정은 ‘끊임없이 활수(活水)가 흘러들어 오는 정자’라는 뜻을 가지며 창건 당시 연못 가운데 섬에 세워진 단칸의 정자였지만, 이후 一자형으로 언덕 쪽의 온돌방과 연못 쪽의 누마루로 구성되었다. 온돌방은 장지문으로 두 개의 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과 마루를 연결하는 복도 옆에 다실이 있다. 사방이 문으로만 둘러져 있어 난간이 있는 툇마루를 설치하여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교장의 담장과 대문은 소통의 상징으로 방어적인 개념과 방음과 시선 차단 등의 역할을 하였다. 담장은 경계일 뿐 담장 사이사이에 통로를 열어두었다. 소통의 대문으로는 편문(便門), 협문(夾門)이 있고, 12개의 문이 있다. 문은 공간을 구분지어 주는 역할을 해주며 서로를 소통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여 이동이 활발하며, 선교장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언덕들에 올라갈 수 있어 신체의 활발한 움직임과, 시점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전경을 볼 수 있다.

#### (4) 강릉 선교장에 나타나는 연상 작용

선교장 활래정은 차를 마시며 시를 읊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다정이었다. 온돌방과 누마루를 연결하는 복도 한켠에 있는 다실에서 선교장의 대표적인 연꽃차를 우려 내었다. 이 다실은 현재에도 선교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외별당은 사대 선교장 대주 이용구가 동생 의범의 가족을 위해 지은 것으로 현재 대문채와 본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외별당에는 장남을 대신하여 선교장을 경영하는 차남 이강백이 살고 있어 선교장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또한 행랑채와 술거노비들의 거처였던 스물다섯 채 정도의 초가는 현재 숙박체험이 가능하다. 선교장은 다양한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지각적으로 체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4.4. 강릉 선교장의 현상학적 특성 추출

4.3.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강릉선교장 분석을 정리해보면, ‘방향성, 공간감, 움직임, 연상작용’의 현상학적 공간 요소를 대입하여 강릉 선교장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공간 특성을 추출 할 수 있었다. 현상학적 접근으로 지각되어 지는 공간은 앞의 제시된 현상학적 공간 요소의 따른 순서로 분석되어 시지각적 체험을 확장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현상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강릉선교장의 공간특성

현상학적 공간요소	강릉선교장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성
상·하의 방향성	축의 방향 -> 공간에서의 신체역할 -> 시각+촉각 소여 ↓ 동선의 흐름 -> 높이에 따라 다른 시점변화 -> 지붕의 곡선
깊이의 공간감	직접적인 관찰 -> 사물과의 관계 -> 몸의 실존적인 체험 ↓ 개구부에 의한 개방-폐쇄 -> 액자 프레임 효과 -> 채와 채의 중첩
신체의 움직임	객체와 운동의 상대성 -> 주의환경과의 관계 -> 신체의 위치 변화 ↓ 자유로운 공간열개 -> 담장에 의한 개방-폐쇄 -> 지형의 시점 변화
연상 작용	과거·미래의 공존 -> 세계에 내속되는 주체 -> 물리적·기하학적 체험 ↓ 원형 그대로의 모습 -> 전통 문화체험 -> 주변환경과 소통

## 4.5. 강릉 선교장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성

<표 2> 현상학적 접근으로 바라본 강릉 선교장의 공간특성

상·하의 방향성	축의 방향	공간에서의 신체역할	시각적 + 촉각적 소여
선교장 공간특성	동선의 흐름	높이에 따른 시점 변화	지붕의 곡선
공간 분석	 <p>선교장 배치도</p> <p>평대문으로 3갈래, 솥대문으로 4갈래로 나뉘지고, 다시 협문과 중문들로 나뉘진다.</p>	 <p>서별당 -&gt; 열화당</p> <p>기단이 높은 서별당에서 내려다 볼 때, 협문과 중점되는 시점의 변화가 다양하다.</p>	 <p>사랑채 &gt; 안채 &gt; 동별당 &gt; 외별당</p> <p>위계순서에 따라 위치한 채의 평면으로 생겨나는 지붕의 방향성이 자유롭다.</p>
깊이의 공간감	직접적인 관찰	사물과의 관계	몸의 실존적인 체험
선교장 공간특성	개구부에 의한 공간의 개방과 폐쇄	액자 프레임 효과	채와 채 사이의 공간 중첩효과
공간 분석	 <p>활래정</p> <p>뒷마루로 외부와 내부의 이동이 활발하여 자연과의 소통이 가능하다.</p>	 <p>활래정</p> <p>창을 통해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풍경작용과 하나의 액자처럼 공간을 연출해준다.</p>	 <p>안채 -&gt; 연지당</p> <p>안채와 연지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공간의 중첩효과</p>
운동의 움직임	객체와 운동의 상대성	주의환경과 관계	신체의 위치 변화
선교장 공간특성	자유로운 공간 열개	담장에 의한 개방과 폐쇄	지붕에 의한 시점의 변화
공간 분석	 <p>동별당</p> <p>개구부를 모두 개방 하였을 때 공간과 공간을 지나가는 바람길을 만들어준다.</p>	 <p>외별당 담 밖과 안</p> <p>밖에서 보았을 때의 폐쇄적인 시점과 마당에서 내려다보이는 시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p>	 <p>열화당</p> <p>선교장 주변의 언덕에 의해 신체의 이동이 자유로워 다양한 전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p>
체험된 공간의 연상 작용	과거와 미래의 공존	세계에 내속되는 주체	물리적, 기하학적 체험
선교장 공간특성	원형 그대로의 모습	전통 문화 체험	주체에 의한 시점 변화
공간 분석	 <p>925년경, 활래정</p> <p>선교장은 대체적으로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p>	 <p>현재, 열화당</p> <p>외관은 옛 모습 그대로이며, 현재 도서관으로 이용되어 사랑채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p>	 <p>활래정 다리에서 바라본 전경</p> <p>활래정 방지에 놓인 다리를 통해 사계 감상이 가능하다.</p>

## 5. 결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공간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지각 중심의 체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메를로-퐁티의 공간개념으로 강릉 선교장을 분석해 보았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시지각적 체험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으며, 연구 분석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요소인 상·하, 깊이, 운동, 체험된 공간을 통해 강릉 선교장에 대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학적 공간특성을 추출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선교장에 내재되어 있는 상·하의 방향성은 유기적인 평면에 의한 자유로운 신체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선교장은 바닥의 높이 차이를 두어 위계성을 표현하였다. 일반적인 상류주택의 동선체계인 수직 축과 달리 수평 축으로 배치되어 전이적 공간이 곳곳에 형성되어, 자유로운 동선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위계질서를 지키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상·하적 순서가 정해져 있다.

둘째, 사물과의 관계에 의한 깊이는 신체와 상호작용을 말하며, 채와 채로 이동하는 사이에 생겨나는 중첩효과와 -자형의 행랑채가 주는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99채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와 외부, 전이공간들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공간의 깊이감이 더해진다.

셋째, 운동성은 신체와 객체의 움직임에 따라 지각되는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선교장은 행랑채가 담장과 같은 역할로 외부와 단절시키며 구조물에 의해 생겨나는 외벽의 라인은 덩어리들의 반복으로 인한 리듬감을 주는 유동체성을 형성한다. 선교장의 가장 개방적인 공간인 활래정의 방지에 놓인 다리와 주변의 언덕은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이 외부와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넷째, 체험된 공간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진행되는 전통문화체험을 통하여 지각된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장식들이 각기 다른 기능을 갖는다. 선교장은 활래정, 열화당, 행랑채 등에서 체험이 가능한데, 열화당은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행랑채는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전통 공간 안에 현대적인 생활패턴이 적용되어 과거와 현재가 존속하는 시간성을 준다.

즉, 현상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강릉 선교장은 사대부들의 문화마당으로 점차 규모가 확장되어 기존의 상류주택들과는 달리 채의 위치가 자유로운 일자형의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의 높이 차이로 공간을 구분하면서 다양한 시점 변화로 시지각적 체험이 풍부하다. 본 연구는 현상학에 있어 신체의 감각과 시지각적 체험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상류주택인 강릉 선교장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전통 공간 마다 내재되어 있는 현상학

적 공간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1. 류의근,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2.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3. 차장섭,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집 이야기, 열화당, 2011
4.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5. 오영근, 건축·감성디자인의 언어 인간척도론, 시공문화사, 2002
6. 김도경,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 현암사, 2011
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2012
8. 서수경, 업무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7호, 2003.4
9. 오영근, 공간디자인에서의 감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04.4
10. 육우수, 시각과 시축각에 의한 운동 측면에서 본 공간과 시간의 관계성 연구-연경당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20권 1호 통권74호, 2011.2
11. 이상은, 주생활과 공간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조선시대 상류주택 분석,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2. 김태우,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통해서 본 독락당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07
13. 하선훈,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통해 본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통도사를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11
14. 권소영, 시간개념을 적용한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15. 서수경·유선미, 한국 전통건축의 강릉선교장에 나타난 현상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1호, 2013. 5
16. Maurice Merleau-Ponty,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Humanities Press, 1962
17. Maurice Merleau-Ponty, The Film and the New Psyc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18. Martin Jay, Scopic Regimes of Modernity, in Hal Foster, Vision and Visuality, Bay Press, 1988
19.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the third edition, John Wiley: New York, 2005

[논문접수 : 2013. 08. 31]

[1차 심사 : 2013. 09. 18]

[게재확정 : 2013. 10. 11]